

격려사

청명한 가을 기운에 자비롭고 상서로운 빛이 더하여 원통암 낙성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풍요로움에까지 이르는 오늘의 법회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사를 이루는 일은 불법을 수호하는 일이요, 불법승 삼보를 청정한 마음으로 모시어 귀명(歸命)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불자들로 하여금 지혜와 복덕을 생성시키고 공덕을 서로 나누는 일이며, 모든 생명 일체중생에게 보살의 길을 안내하고 성불케하는 소중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나옹선사의 원력을 이어 팔백년 역사의 원통암을 다시 우리 곁으로 일신한 진력은 주지 각문스님의 각별한 서원이자 철저한 불법 수호자의 신념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삼보의 옹호자이며 불자들을 복되게 이끄는 큰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이곳 황정산을 정진의 마음으로 셀 수 없이 오르내리며 이룬 공덕은 불제자로서 불은에 보답하겠다는 지대한 공덕입니다. 이에 황정산 원통암은 탕탕(蕩蕩)하여 비길 것 없고 외외(巍巍)하여 짝할 것이 없어, 밝고 맑으며 은은하고 그윽하여 싱그러운 도량입니다.

대지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마음가짐이 바로 이러한 심성에서 생성되고 원력을 이루어 실천하는 성취가 청정한 물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운융창(國運隆昌)과 평화통일의 발원이 여기에서 또 시작될 것이며, 발고여락(拔苦與樂)의 중생 행복이 성취될 것입니다.

뜻 깊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의 신념과 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원해 주신 문체부 장관님과 충북 도지사님, 그리고 단양군수님과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의 불사회향이 많은 분들의 행복과 평온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10월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